

“도민 체감형 민생경제살리기 신속집행”

전북자치도, 14개 시군 합동 집행 부진사업 분석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강화로 소비 촉진
공공요금 부담 완화, 실질적 민생 대책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민생경제살리기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지난 2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1분기 민생경제 분야 사업 추진 현황과 부진사업 대책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2025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1.9%에서 1.5%로 하향 전망한 가운데, 고물가·고금리 기조와 내수 부진 등 대내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는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비롯해 경제 관련 부서장 및 도내 14개 시·군 경제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민생경제사업 신속집행 현황 △부진사업 사유 및 대책방안 △집행을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이자리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물가안정, 전통시장 지원 등 소비 촉진 △자급 공급, 일자리 지원, 기업 지원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사업에 예산이 조속

히 투입될 수 있도록 시군에 적극적인 집행을 요청했다.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높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이 높은 우수 시군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축제나 주요 행사와 연계한 구매제도 상황, 할인율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신속집행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시군 공공요금에 대해 인상 자제 및 동결 유지하되, 불가피하게 인상이 필요한 경우 인상폭 최소화, 요금 인상시기 분산 조정 추진 등 협조를 요청했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민생경제사업은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실행의 동력이다”며 “속도감 있는 현장 중심의 집행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무주 산불 37시간 만 완전 진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남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37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28일 전북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 22분쯤 발생한 산불은 무주군 부남면의 한 주택 저운 창고의 누전이 발화 원인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85ha 산림 소실과 야산 인근 주택 1동, 농막 1동이 전소됐다.

이날 일출과 동시에 임차헬기 2대 및 진화대가 잔불까지 완전히 정리한 후 오전 11시쯤 이재민 221명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

/무주=최희호 기자

■ 사 고

새로운 도전에 함께 할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타임스가 취재 경력 기자를 모집합니다. 전북타임스는 21세기 전북 언론문화를 창달하고 지역발전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타임스는 새로운 시대와 전기를 마련할 역량있고 패기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모집내용	인원	응시자격
경력기자(취재 부문)	0명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원서접수 : 2025년 3월 31일(월)~4월 4일(금)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 : 이메일(jbn8800@daum.net) 송부
- 기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1차 합격자는 개별통보
자세한 내용은 본사 (063) 282-9601 로 문의

“전주 탄소중립 학교교육 도입”

전주시·넷제로아카데미 협약
국내 최초 영국서 인증 교육

전북자치도 전주시정연구원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는 28일 넷제로아카데미(주)와 국내 최초로 영국에서 인증된 탄소중립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도입하기 위한 공동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전주시 초·중·고등학교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탄소중립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영국 맨체스터 카본리터러시 트러스트(Carbon Literacy Trust, CLT) 재단의 탄소이해력 교육(Carbon Literacy @)을 국내 최초로 지자체 차원에서 공식 도입하고, 전주시 교사와 학생들에게 국제적 수준의 탄소중립 교육과 전문자격 취득 기회를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단순한 환경교육을 넘어 기후과학과 국제 탄소규제, 기후위기 대응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은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멀티미디어 강의(총 8시간)로 진행되며, 교육은 성공적으로 마친 참가자에게는 영국 CLT 재단에서 국제공인 ‘Carbon Literate’ 자격증이 발급된다. 이 자격증은 향후 진학 및 유학 준비과정에서 ESG 활동 실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와 넷제로아카데미(주)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전주시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재와 교육영상을 제작해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교교육과 연계한 체계적인 탄소중립 교육을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전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연계해 학교 교육 내에서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은 “탄소중립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글로벌 환경이슈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협하게 다시 창공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야생동물 보호 및 생태계 복원 노력의 일환으로, 28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43-1호인 독수리 두마리를 김제시 진봉면 심포향 인근에 성공적으로 자연 방사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새만금개발청, 육상 김 글로벌 식품허브 추진

새만금개발청-폴무원,육상 김 양식 상품화 관련 국제 협력 방안 협의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폴무원 수서 본사를 방문해 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국제 식품 관련 기관들과 육상 김 양식 사업의 성공 및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지난 28일 논의했다.

폴무원은 작년 7월부터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 가공 종합단지에 ‘육상 김 알앤디(R&D, 연구·개발) 센터(2,800여 평, 60억 원)’ 구축을 위한 입주 계약을

약을 체결하고, 김 생산 연구와 가공·상품화를 준비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식품허브 추진을 위해 ‘새만금 글로벌 푸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국제 푸드테크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마련 중이다.

이에 폴무원도 네트워크에 참여할 예정으로 이미 협업 중인 국제기관들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특히 해조류에 대한 연구와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유럽의 식품시장 현황에 맞춰 스위스 푸드앤뉴트리션 벨리(SFNV)와 함께 폴무원과 육상 김 양식 관련 협력 사업을 진행할 기업을 매칭 중이며, 스위스 푸드앤뉴트리션

벨리(SFNV) 정기 교류행사(5월 중)에 폴무원도 참여해 육상 김 양식 사업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고 관심 기관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최근 새만금에 유치 중인 해양육 연구 사업과 폴무원의 육상 김 양식 간 유사성을 바탕으로 협력 연구의 가능성에 따라 네덜란드 와게닝겐대(WUR) 등과의 공동 연구도 검토 중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폴무원이 추진 중인 육상 김 양식 사업이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성공을 위한 중요한 선발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에 따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에는 지역어업인과 상생 협약을 주도한 바 있으며, 오는 5월 16일 개최 예정인 ‘한국-네덜란드 새만금 국제 협력 세미나’에도 폴무원의 육상 김 양식 사업을 발제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유지원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단장은 “육상 김 양식을 선도해 나가는 폴무원의 기술과 경험, 새만금개발청의 전문적인 지원이 합쳐진다면 글로벌 김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며 “새만금 육상 김이 글로벌 식품허브의 첫 번째 시그니처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김슬지 도의원, 농촌정책 대응방안 모색 농어촌 현장활동가들 우수사례 발표·애로사항 청취

법 개정 및 농촌정책 변화에 따른 전북자치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지난 28일 전북자치도 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및 △농촌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방안과 농촌지역 현장의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개선에 반영하고자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서는 전북연구원 황영모 생명경제정책실장이 농촌경제·사회서비스와 지역사회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영석(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실장), 김석(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노영권(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박기연(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 사무국장), 김명희(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장)의 우수사례 발표 및 정책제언, 애로사항에 대한 청취가 있었다.

농어촌 현장활동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생생마을 만들기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내는 사업들이 지속가능한 정책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간담회를 개최한 김슬지 의원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현장 활동가들 대한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더욱 노력해 줄 것과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전북도, 구제역 유입방지 54만마리 긴급백신접종 완료

전남 14건 확산 추세 심각성 고려 접종 독려 가축시장 중단 연장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남 지역에서 확산 중인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긴급 백신 접종을 지난 27일 조기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전남 영암에서 첫 구제역 발생 이후 지난 23일까지 영암 13건, 무안 1건 등 총 14건이 잇따라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14일부터 도내 소·염소 약 540,500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전북자치도는 72개 접종반(144명)을 투입해 3월 말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

이었지만, 인접 지역 확산세에 따라 접종 인력을 30명 추가했다.

또 미접종 농가에는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접종을 독려해 일정을 앞당겼다.

특히 도는 접종 완료 후에도 방역조치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또 도는 백신 접종 후 면역 형성이지 최소 1~2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가축시장 운영 중단 조치를 오는

31일에서 4월 6일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도는 전남 발생 상황을 고려해 최소 13일까지는 도내 가축시장에서 전남 소의 거래를 금지할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출입 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농가에서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직소민원실 도청 1층으로…빠른 민원 해소

전북특별자치도가 보다 빠른 도민 민원 해소 위한 서비스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직소민원실을 청사 1층으로 이전했다.

도는 지난 28일 청사 4층 직소민원실을 1층으로 옮기고, 민원 전용 상담 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이전은 민원인이 보다 빠르고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이와 함께 ‘2025년도 전자민원모니터단 지역별 소통 간담회’도 추진한다.

간담회는 도내 14개 시군의 모니터요원 208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 민원현안을 수렴하고, 직소민원 처리 절차와 효과적인 제보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간담회는 오는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총 20여 차례에 걸쳐 시·군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02년부터 전자민원모니터단을 운영해오며 현장 중심의 민원 해소와 도민 의견 수렴에 힘써오고 있다.

백경태 전북자치도 대외경제소통국장은 “앞으로도 간담회를 지속 추진해 전



자민원모니터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전국 최초 염소 주민등록번호 부여…품종 개량 시스템 도입

전북특별자치도 염소사육 농가들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며 소득 증대에 큰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염소 개체 정보 등록 시범사업을 순창군과 장수군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염소 개체별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귀표를 부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현재 염소 사육은 소와 달리 개체별 관리 체계가 미비해 혈통·개량 정보 부족, 유통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염소 개체별 등록을 통해 품종 개량 기반을 마련하

고, 농가 경쟁력과 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농가에는 사육개체 관리비, 이표구입비, 등록비 등이 지원되며, 농가의 부담을 줄이면서 체계적인 사육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염소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

종축개량협회’와 협력해 이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해 염소 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노인일자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지난 28일 대우빌딩 3층 회의실에서 19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간담회는 △이금안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의 인사말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성과평가 △△사업량 배정 및 현장 의견을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수행기관 실무자는 “다른 수행기관들과 함께 노인일자리사업 발전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

와 함께 노인일자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금안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은 “항상 전주시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힘쓰시는 수행기관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함께 노인일자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행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올해 1만6495명 규모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5개 동 주민센터 외에도 3개 시니어클럽(전주, 서원, 효자)과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7개 노인복지관(안골, 금암, 서원, 양지, 덕진, 꽃발정리, 전북), 2개 사회복지관(명화, 큰나루종합), 전주재가노인복지협회 등 총 19곳에서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정재근 기자



회장 임근홍

도전과 개척의 역사!

'전문건설인'의 미래를 향한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묵묵히 건설현장을 지키며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그 역할을 다해온 전문건설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회원의 권익신장과 업역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13대 제임원·지역위원장									
회 장	임근홍	(유)유원건설	유홍중	(주)누리토건	김만성	(유)보성건설			
부 회 장	김진호	(유)대한건설	박병규	(주)세림건설	강훈희	(유)대가건설	이선환	(유)금성건설	
감 사	최영재	(유)성주건설	박찬용	(유)성지토건	박이수	(유)베스트이엔씨	윤현철	(주)한성개발	
운영위원	신현철	(유)서영건설	방한웅	(유)도양건설	박병기	(주)도림	박병철	(주)백제건설	
	박병태	(유)금나라건설	임완택	(유)석금	이우상	(유)금강건설			
	김종옥	(유)대광건설산업	김남한	(주)우성인테리어	군산	박상배	(주)고려건설	김제	이선환
	김재주	장남건설(주)			부안	홍범철	(주)예원	순창	오준두
지역위원장	고창	박충귀	(유)기능건설		익산	장인갑	(유)청우건설	장수	이대훈
	남원	강상원	(유)반석		진안	강준희	성안건설(주)		
	완주	최한영	(유)삼라건설						
	정읍	신현철	(유)서영건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농어촌公, 청년농업인 육성 농지 지원 강화

청년농 협의체 의견 수렴 농지은행 관련 제도 개선 '선임대후매도' 193억 원 확대…스마트팜 지원 강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활력과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농지은행'을 통한 청년농업인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이 중심이 된 제도 개선 협력체계(커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지 구입과 농지 임차, 스마트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는 청년농업인이 더 편리하게 농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농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청년농업인과 지자체 청년농업인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하반기에는 9개 권역 청년농업인과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 학계가 함께하는 '중앙 협의체'를 구성했다.

'청년농 협의체'를 통해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중에 겪는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벼 이외 작물만 경작할 수 있었던 공공임대용 농지에 가루쌀 재배가 가능하게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올해는 청년농업인이 더 쉽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지 구입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했다.

자부담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22억 원 증액한 193억 원으로 확대했다.

자부담금이 필요한 '농지매매사업'도 청년농업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보다 213억 원을 늘린 953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원 단가도 지난해 26,700원/㎡에서 38,500원/㎡로 대폭 인상했다.

농지 임차도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선했다.

청년농업인이 공공임대 농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포털을 통한 농지 공고 일지를 '매주 화요일'로 지정해 청년농업인이 매일 농지은행 포털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또 공공임대 농지에 농업용 비닐온실 등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기존에는 계약 후 1년 이내에만 설치 신청이 가능했으나, 계약 기간 중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해 더 편리하게 영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농지은행 공공임대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도 내실화하고 있다.

청년농업인 간 공동 영농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팜을 집단지화하고, 기존에 농지를 소유한 청년농업인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도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소통과 제도개선을 계속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 협의체'를 통해 청년농업인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이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훈 농지은행처장은 "공사는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 제18회암예방의날기념캠페인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제18회 암 예방의 날(3월 21일)을 맞아 전북대병원 암센터 주 출입구 앞에서 도민들에게 암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기념 캠페인을 지난 28일 실시했다.

암 예방의 날(3월 21일)은 해마다 증가하는 암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암 예방과 조기 진단·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전북지역암센터(소장 정영준 교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암 예방의 날 기념 주간 캠페인에서는 원내 직원 대상으로 암 예방 및 검진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전달하는 이벤트가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와 연계해 전북특별자치도 있는 암 예방법을 알리고 실천을 독

려하는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북대병원 암센터 앞에 준비된 홍보 부스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를 포함한 내원객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암예방 수칙 빈칸 퀴즈 이벤트가 진행됐다.

이날 암종별 안내 및 국가검진 사업 등을 소개하는 홍보 리플릿이 배부되는 등 많은 참여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양종철 병원장은 "암 발병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질병인만큼 생활습관 개선과 예방활동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들이 암을 바로 이해하고 국민 암 예방 10대 수칙을 지켜 암의 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고 지역 암센터의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부영그룹,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산불 피해 복구 5억원 성금

국가 재난 상황 때마다 지원 나서…기부금 누적 1조 2천억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 복구에 앞장서고 있는 부영그룹이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 피해 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27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억 원을 기부했다.

부영그룹은 예상치 못한 산불 피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불 진화하고 피해 복구, 이재민 지원 등을 위해 이번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

부영그룹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

탁한 성금 5억 원은 경상도 일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대형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 및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상심이 클 피해 지역 주민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빠른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산불이 진화되어 이재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그동안 재난·재해 피해가 생길 때마다 성금과 아파트 지원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9년, 2022년, 2023년 발생한 강원지역 및 동해안 산불 피해를 비롯해 2017년 포항 지진 발생 당시 수억 원의 성금 기부와 함께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영 아파트를 지원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천안함 침몰 관련 유족지원 성금, 세월호 피해지원 국민모금 성금, 경주 지진 피해 복구 성금,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등 국가 재난 상황 발생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이종근 회장

이처럼 국내외를 불문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부영그룹은 모범적인 ESG 경영활동을 실천하는 대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회에 기부한 금액만 1조 2천억 원이 넘는다.

/김영태 기자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사진=전북농협>

산불 피해 복구에 기관들 한마음

도내 기관들이 전국 곳곳 산불 피해에 따른 복구 지원에 나섰다.

전북개발공사는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지원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공사 ESG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대한적십자사에 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공기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기부금은 생필품, 담요,

응급세트 등 긴급구호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대형 산불에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지원에 나섰다.

한전은 영남권 산불 피해지역 주민의 전기설비 무상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거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무상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대피시설 71곳의 긴급 전기 안전점검과 해당 지자체에 성금을 기탁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농협, 전북재해구호기금 전달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협동조합 간 협동, 상생의 가치 실현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을 위해 재해복구성금을 마련해 지난 28일 부안중앙농협에 전달했다.

지난 1월 부안중앙농협은 내부 누전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해 '양곡창고 1개동, 농기계센터 1개동, 양곡 350톤이 손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날 전달된 '전북재해구호기금'은 관

내 전 농축협이 한 마음으로 조성한 것으로서, 회원의 각종 재해 등에 의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전북재해구호기금' 전달식 자리에는 김원철 농협중앙회 수석이사, 이정환 전북본부장이 참여했으며, 전달된 기금은 재해복구에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원철 농협중앙회 수석이사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동주공제(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냄)의 마음으로 응원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개화기 과수화상병 방제 2회 이상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올해 전국 주요 배, 사과 주산지의 꽃 만개 시기가 예측됨에 따라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개화기 제때 방제를 당부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자료(3월 26일 기상 기준)를 보면, 배꽃은 '신고' 품종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4.5~4.7.) △전남 나주(4.10~4.12.) △경기 이천, 충남 천안(4.14~4.19.) 순으로 만개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과 꽃은 '후지' 품종을 기준으로 △경남 거창, 대구 군위(4.17~4.19.) △충북 충주(4.19~4.21.) △전북 장수, 경북 영주(4.20~4.22.) △경북 청송(4.24~4.26.) 순으로 필 것으로 전망했다.

배, 사과 재배 농가는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fireblight.org)'에 접속하거나 농촌진흥기관이 발송하는 알람 문자를 보고 과수원 소재 지역의 꽃 감염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는 접속일 당일부터 3~4일 후까지의 꽃 감염 위험도 정보를 제공한다. '위험' 및 '매우 위험'

경고가 예측되면 경고 1일 전 1차 약제를 살포하고, 2일 이내 다른 계통의 2차 약제를 준다.

위험 경고 1일 전에는 '옥슬린산'이나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성분이 포함된 약제 중 1종을 선택해 살포를 권장하고 있으며, 위험 경고 후 2일 이내에는 '스트렙토마이신' 성분이 포함된 약제를 준다.

온라인 정보를 찾아볼 수 없거나 알람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농가는 과수원의 꽃이 절반 정도 피었을 때 1차 방제하고, 5~7일 간격을 두고 2차 방제를 한다.

개화기에는 과수화상병 감염 위험도가 꾸준히 높아지므로, 2차 방제 후부터는 3일 간격으로 다른 계통의 2~3가지 약제를 번갈아 살포한다.

방제 약제와 친환경 제제는 반드시 정해진 양만큼 사용하고, 다른 약제와 섞어 쓰지 않는 등 사용 지침을 지켜야 한다.

/김영태 기자

전주상의, 전북 기업사랑 사진·동영상 공모전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지난해에 이어 '제2회 전북 기업사랑 사진·동영상 공모전'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시상내역은 대상 1점(200만원), 최우수상 1점(100만원) 그 밖에 우수상 3점, 입선 30점 등 다수의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작은 전주상의 비즈니스라운지에 전시할 예정이다.

응모자는 공모전 홈페이지(contest.jcci.or.kr)나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운영사무국(063-280-1155)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5기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온·오프라인 브랜드 홍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2025년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5기' '동행의 시작'을 지난 28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진행했다.

이번 '동행의 시작'은 백종일 은행장을 포함한 전북은행 임직원과 최종 선발된 25명의 서포터즈 5기 학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환영 세레모니 및 임명장 수여 등 5기의 시작을 축하하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5기는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북북 뛰는 아이디어로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기획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025년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5기' '동행의 시작'을 지난 28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진행했다.

<사진=전북은행>

하고, 도내 대학교 캠퍼스 및 관광명소, SNS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전북은행 브랜드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새롭게 소중해진 인연을 맺게 된 대학생 서포터즈들의 열정으로 전북도민과 YOUTH 고객의 눈높이로 함께 소통하는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며 "도내 대학생에게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를 도내에서 전통 있는 대외활동으로 성장시키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농협전북본부 구내식당에서 각 법인대표 및 임직원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침밥 먹는 날' 행사를 지난 28일 진행했다.

행사는 아침밥 먹기 생활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매일 두 번째 화요일에 전 직원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아침밥 먹기 행사를 통해 전북농협 전직원들의 식습관 문화가 개선되어, 아침밥 먹기 공감대 확산이 어어지길 기대했다.

제공되는 아침밥 식단은 전북에서 생산된 쌀 및 제철 재료가 사용되며 전북 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지속 감소하고 있는 1인당 연간 쌀 소비량('24년 55.8kg, 30년 전 대비 52.5kg(48%) 감소, 국가통계포털)을 늘리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태 기자

익산 '벚꽃 시티투어'로 관광객 봄 정취 만끽

익산시가 봄꽃 만개한 4월 특별한 시티투어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시는 봄을 맞아 '익산 벚꽃 시티투어'를 오는 4월 5일과 6일, 12일, 13일 총 4일간 주말을 이용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티투어는 익산의 아름다운 벚꽃 명소와 전통시장을 연계해 구성된 특별 노선으로, 봄 정취와 지역 상권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참가비는 1만 원이며, 참여 신청은 오는 4월 3일까지 전화(063-841-4788)로 선착순 접수한다.

투어는 '인스타그램 코스'와 '감성충만 코스' 두 가지로 운영된다. 각 코스는 백제왕궁(익산 왕궁리유적) 등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춘포역과 도정공장 같은 숨은 사진 명소까지 돌아본다.

특히 자전거를 타며 벚꽃을 감상하는 시간도 포함돼 봄을 만끽하며 감성을 더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중앙·서동·매일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지급돼 봄 나들이와 함께 전통시장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도 경험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산불 피해 지역에 구호 텐트·바닥 매트 전달

익산시가 최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며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건넸다.

시는 산불 피해로 타격을 입고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구호 텐트와 바닥 매트 50점을 긴급 전달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과 응급 복구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물품을 마련했다.

시는 피해 지역 재난부서와의 협의로 필요한 물품을 빠르게 파악해 신속하게 조달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재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의료원, 진료협력병원· 복지시설 초청 간담회 성료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은 지난 26일 본관 1층 강당에서 진료협력병원 및 복지시설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32개 기관이 참석하여 군산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급성기 진료시설 신관동 개관 홍보영상 관람 △참석기관 소개 △의료원 및 의료진 소개 △진료체계 및 회송센터의 역할 안내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및 공공보건의료협력사업 소개 △Q&A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사 후에는 군산의료원 신관인 급성기 진료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시설투어도 진행되어 참석자들에게 군산의료원의 최신 시설과 진료 환경을 소개하는 기회가 제공됐다.

특히, 조준필 원장이 직접 진행한 자유토론 세션에서는 협력 병원 및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이 펼쳐졌다.

군산의료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협력 기관들과의 상호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스마트 자율주행 청사진 나왔다

익산시, 용역 최종보고회 관제센터·정류장 등 설치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익산시 '스마트 자율주행 기반 조성사업'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익산시는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이번 용역에는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실증 운행과 통합 관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는 오는 5월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통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실현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 관계자와 외부 교통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도출된 설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향후 사업 추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자율주행 통합관제센터 구축 △스마트 정류장·교차로 등 도로인프라 설치 △자율주행 플랫폼·빅데이터 기반 분석 시스템 개발 등으로 구성된다.



익산시는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익산시>

통합관제센터는 서버와 디지털 트윈 기반 3D맵, 상황판 시스템을 설치해 자율주행차의 실시간 위치와 상태를 통합 모니터링하고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율주행 노선은 익산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내년에는 원광대~익산역~익산시외버스터미널 구간(4.8km), 2028년에는 배산체육공원~익산역~전북대 특성화캠퍼스 구간(5.1km) 등 2개 노선에 자율주행차량이 실증 운행된다.

또한 도로 인프라도 대폭 고도화된다. 교차로 신호정보를 차량에 실시간 전송하는 '신호현시 서비스', 보행자 무

단행단 감지·경고 시스템, 도로 돌발상황 감지용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냉난방과 공기정화 기능을 갖춘 스마트 정류장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는 첨단 설비가 마련된다.

특히 이용자가 모바일로 자율주행차를 예약하고, 실시간 교통·주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MaaS(이동수단 통합 서비스) 웹 서비스'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자율주행차와 기존 교통수단을 손쉽게 연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4월 3일 오전 10시~15시 옥도면행정복지센터

군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직접 민원 현장을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민 권익구제 서비스이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옥도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다.

상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조사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업 기관 관계자가 참여해 모든 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고충 민원 상담 △소상공인 경영·지원 △생활법률 상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해당 장소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중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이나 단순 문의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고충 민원은 접수 후 심층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처리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노인복지관 2곳, 전국 평가서 'A등급' 쾌거

정읍·북부노인복지관 선정 시설·환경·재정 등 좋은 평가

정읍시의 노인복지 수준이 전국적으로 우수함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노인복지관 평가'에서 정읍시가 위탁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2곳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0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기준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했다.

평가 항목은 ▲시설·환경 ▲재정·조직 운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 ▲시설운영 전반 등 총 5개 분야로, 각 항목에 대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사진=정읍시>

A등급을 받은 정읍시노인복지관과 북부노인복지관은 시가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복지관은 노년사회화교육, 건강지원사업, 기능회복 프로그램,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르신들

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결과는 두 복지관이 평소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꾸준히 노력한 덕분"이라며 "정읍시도 노인복지관과 협력해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깨끗한 바다 만들기 해양쓰레기 저감 총력

올해 30억 투입 약 2,500 톤 처리 목표

군산시가 깨끗한 군산 바다 조성을 위해 30억 예산을 투입, 올해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세부 사업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해안정화 사업 ▲방치 선박 정리지원 등 10개 사업이다.

시는 '깨끗한 천해 어장 환경 만들기' 조성을 목표로 연안과 도서 지역 해양쓰레기 약 2,500 톤 처리에 나섰다. 또한 육·해상 발생원 관리 강화, 효율적 수거 관리 기반 구축, 시민 참여 확대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는 지역 주민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주민이 사는 어촌마을 환경을 직접 개선하도록 힘을 보낼 방침이다. 쓰레기 수거와 함께 일자리도 제공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군산시는 278.36km(육지 181.54km, 도서 96.82km)에 달하는 긴 해안선 등 지리적 영향과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성 해양쓰레기 발생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시는 해양쓰레기 민원 대응팀을 설치했고, 해안가와 인접

한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도 지원해 상시 수거에 나설 계획이다.

접근이 어려운 암반 지역, 수거 사각지대의 경우엔 지역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수거 방안을 마련해 지역 어민 등과 함께 수시 점검한다. 지역 환경에 따라선 소규모 어선 입차 또는 전문 장비 투입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해 해양환경 인식 교육 및 홍보활동도 확대한다. 해양쓰레기 발생이 많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정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역 어민 등의 인식 전환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사진=익산시>

익산 중앙동 "장보고, 이색 체험도..."

이리온 스크린 스포츠 체험관 개관... 가상 스포츠 게임

익산시가 중앙동 구도심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상 스포츠 체험관을 조성했다.

익산시는 오는 4월 8일 중매커뮤니티라운지 2층에 '이리온(ON) 스크린 스포츠 체험관'을 개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체험관은 행정안전부 주관 '슬기로운 동네생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통시장 내에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마련해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리온(ON) 체험관은 매주 화~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축구 △클레이사격·탁헌팅 △피칭·양궁 △캔디슬래시·액션레이싱 △농구 △핀볼 등 총 9종의 가상 스포츠 게임을 체험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특히 전통시장 또는 청년몰에서 3만 원 이상 구매 시 6종 게임 이용권이 제공되며,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체험관 개관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5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오후 1~5시 무료 개방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이리온(ON) 스크린 체험관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읍 신태인 파크골프장, 4월 1일 재개장

정읍시 신태인 파크골프장이 잔디 보호와 시설 정비를 위한 임시 휴장을 마치고,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본격적인 운영을 재개한다.

이번 재개장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됐다.

휴장 기간 동안에는 골프장 내 잔디를 집중 관리하고 모래를 고르게 살포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시는 이를 통해 골프장 전반의 품질을 높이고, 골퍼들

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플레이 환경을 조성했다.

신태인 파크골프장은 동진강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품은 36홀 규모의 코스로, 전통이 독립형으로 조성돼 쾌적하고 편안한 플레이가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다.

특히 2023년 9월에는 도내 최초로 36홀 공인구장 인증을 획득하며 명품 파크골프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신규사업 정부예산확보 총력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서기수)는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중인 「영농편의시설개선사업」의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지사는 침수예방 '배수시설 설치' 및 '용배수로 현대화' 신규사업의(수해면적 1,951ha 총사업비 453억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확보 주요 내용으로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배수개선사업(297h 266억) 기능이 저하된 수시 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사업(2,654h 187억)이다.

지사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 설명회를 통해 장마철 침수피해 현황과 사업 타당성 및

신규예정지 발굴계획 등을 적극 설명하고, 예산 적기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군산시를 방문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지방비 지원의 필요성과 사업을 위한 시의 역동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서기수 지사장은 "용·배수로 준설 및 수초 제거, 시설 상시안전점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활동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해피해 예방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해당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업설명회 개최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단풍미인쇼핑몰, 홈페이지 '확' 바뀐다

정읍시의 대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단풍미인쇼핑몰'이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면 개편에 나선다. 매출 상승세에 발맞춰 편의성과 디자인을 대폭 개선한 새 홈페이지는 오는 7월 1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사용자 중심의 온라인 쇼핑 환경을 구축하고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웹사이트 속도 개선, 간편 로그인과 간편결제 도입, 다중 배송지 기능 추가 등 실질적인 쇼핑 편의요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단풍미인 브랜드에 걸맞은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고 정읍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 소비자에게 더욱 친

근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단풍미인쇼핑몰은 최근 정기 기획전을 중심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추석 기획전에서는 1억 16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15%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고, 올해 설 기획전에서도 8200만원의 매출로 전년 설 대비 134%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이러한 성장세에 박차를 가하고, 고객 만족도와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완주군, 2026년 예산확보 ‘총력전’

중앙부처 방문 설득 본격화 국가예산 1조 7천억 목표

완주군이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일제 출장에 나서는 등 부처 예산 확보 활동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군은 지난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액 5,000억 원 돌파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예산 규모를 늘리는데 성공했고, 올해도 그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 초부터 발 빠르게 준비한 △문화선도산단 조성 공모사업(471억 원)에 선정되면서 국가예산 확보 흐름에 청신호를 알렸다.

문화선도산단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완주군을 포함해 단 3곳만 선정돼 완주군의 경쟁력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군은 유희태 완주군수의 주재로 3차례에 걸쳐 총 59건, 1조 7,106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중점 대응 사업을 선정했다.

2026년 완주군 국가예산 신규 중점 대응 사업으로는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81억 원) △탄소중립 연료(E-fuel) 차세대 엔진 성능 평가센터 구축사업(300억 원) △화산운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92억 원)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258억 원) △국립나라꽃 무궁화연구소 조성(300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완주산단 인입선 추진

(계획반영) 등이다.

군은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5월 말까지 지휘부 건의 활동을 포함한 중앙부처 일제출장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부처 설득을 통해 부처 단계 예산반영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탄핵 정국 등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시기지만, 완주군의 미래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부정적 사업의 경우 부처의견에 따라 사업논리를 신속히 보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축사 냄새 잡는 획기적 미생물 발굴효능 확인

돈사 복합악취, 33%감소 생물학적 처리 비용 절감

순창군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축사 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미생물 소재를 발굴하고, 그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가축 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 과정에서 나오는 기체 상태의 물질로, 인근 지역에 불쾌감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등 다양한 처리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생물학적 방식은 물리·화학적 처리에 비해 설비 비용이 낮고, 생태적 안전성이 높아 최근 친환경 축산관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군은 생물학적 접근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연구 결과, 진흥원은 총 16종의 악취 저감 미생물을 발굴했으며, 특히 SRCM 116907 균주는 실험실 수준에서 암모니아를 93.56% 감소시키는 탁월한 성능을 보였다.

실제로, 양돈 농가에 적용한 결과 복합악취가 33% 감소하는 놀라운 성



순창군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축사 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미생물 소재를 발굴하고, 그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순창군>

과를 거두었다. 세부적으로는 암모니아 83%, 황화수소 55%, 메틸메르캅탄 95%가 각각 감소해, 해당 미생물이 축사 내 악취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SRCM 116907 균주는 커피박과 함께 발효했을 때 축분 악취 저감에 더욱 효과적이었으며, 해당 연구는 2024년 국내 학술지에 발표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순창군과 진흥원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순창군 맞춤형 축사환경 개선 미생물 소재

발굴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악취 저감 미생물 원천소재 확보, 퇴비 부숙화 연구, 축산 농가 연계 실증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악취 분석, 설사 및 혈변 개제에 대한 유해미생물 분석, 인근 수질분석 등 축사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축산농가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mifi.re.kr>)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수원 메가쇼 사회적경제기업 공동부스 운영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025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메가쇼 2025 시즌1'에 참가해 남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알리기 위해 공동부스를 운영한다. 메가쇼는 전국 250여개 기업 400부스가 참가하는 식품&리빙 박람회로 4일간 소비자 5만명 및 여러 바이어들이 방문하는 대형 오프라인 마켓이다.

이번 행사에는 남원 관내 8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인 △지리산처럼영농조합, △(유)메밀꽃피는향아리, △지리산맑은물춘향골영농조합, △(유)하이오백, 마을기업으로 △지리산황치마을영농조합, △(유)웅치마을영농회, △(주)비즈양조, 협동조합으로 △남원미꾸리추어탕협

동조합이 모여 대형 타워부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남원 농가공식품을 홍보·시식할 예정이며 더불어 공동부스 운영기간동안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리는 제95회 춘향제 행사 홍보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선보일 제품으로 들기름과 참기름, 들깨 활용 밀키트, 치즈가래떡 및 떡볶이 양념세트, 도토리묵, 김바구, 유기농 누룽지, 잡곡 강정과 에너지바, 수제 꽃차와 수제맥주, 프리미엄 쌀 전통주, 즉석 추어탕 등 남원지역 청정 농산물을 가공한 특색있는 제품들을 소비자에게 선보인다.

한편 남원 사회적경제기업은 2024년에 처음으로 수원 메가쇼에 공동관으로 참여해 4일간 7,700여만원의 매출



성과를 창출했고, 연계 실적으로 대형 식품가공 업체와 라이브방송 협업 및 국내 판로 다변화와 미국 수출을 달성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도 제품 홍보, 오프라인 소비 매출 진작과 바이어 연계를 통해 유통 채널 및 해외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지원 사업 선정

완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경험에 의존한 농업 현장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농을 지원한다.이에 완주군농업기술센터는 ㄸ스마트팜이전트, 미래센서와 협력해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마늘 등 노지작물 재배농가의 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안정적인 마늘 생산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완주군마늘농업인연구회,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사업수행기업 및 농업기술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사업 착수보고회에서는 참여농가의 마늘재배지 토양온도와 수분함량 등의

측정데이터를 활용해 마늘 생리장해 발생원인 진단, 관수와 관비 시기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는 비옥솔루션과 750작황 정보시스템을 시연했다.

사업기간 동안 데이터기반 참여농가의 마늘생육환경 진단과 컨설팅 및 데이터활용교육 등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참여농가의 이해와 협조사항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남원고전소설박물관이 '2025년 문학상작가 지원사업'에 최초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문학상작가 지원사업'은 문학 관련 시설에 작가가 상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학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공모사업이다. 시민의 문학 수요 및 향유, 문인들의 일자리 제공 및 안정적 창작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여건이 갖춰져 있고, 상주작가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전국의 도서관, 박물관, 서점을 대상으로 하며, 심사를 통해 최종 77개소(전북 문학관 3개소)가 선정됐다.

남원고전소설박물관은 이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상주작가의 인건비와 문학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 2,29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6월부터 다양한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 27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온라인 매칭박람회를 통해 문학 큐레이터로 활동할 상주 작가를 모집한다. 상주 작가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작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칭박람회(munjang.or.kr/munhakcurator/)에서 원하는 문학기관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년 연속 장관상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완주여성새일센터)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4년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유공 포상식'에서 '전국 농어촌형' 유형별 평가에서 1위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완주여성새일센터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전국 농어촌형 우수센터로 선정돼 2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완주군은 이번 수상에서 여성일자리창출 공모 민간기업으로 (유)대성하이텍, 김정하 완주새일센터 매니저도 유공자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새일센터 평가는 사업운영과 센터운영성과 등을 △취·창업지원 △구인구직, 교육훈련 등 서비스제공 △센터운영 △창업지원 실적 4개 분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완주여성새일센터는 취·창업 분야와 센터운영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사후관리 사업(구직자를 위한 취업특강 및 취업캠프, 창업지원 사후관리)과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사업이 호평을 받았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코리아오픈 국제물리경기대회 4월 개최

아시아 대표 국제대회로 자리잡은 '2025 남원코리아오픈 국제물리대회'가 오는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7일간 열린다.

남원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고 남원시체육회와 대한물리연맹이 주최, 전북물리연맹과 남원물리스포츠연맹이 주관해 개최된다.

올해 1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일본, 러시아, 대만, 싱가포르, 중국, 홍콩, 호주 등 총 12개국에서 1,200여 명의 정장급 선수들이 참가해 국제대회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다양한 국가의 선수단이 방문해 국제대회로서 입지를 확고히 한 남원코리아오픈 국제물리대회는 인구 8만의 소도시 남원이 국제적인 스포츠 메카로 발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원시는 그동안 대회를 치르며 축적된 노하우와 대회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 경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의회 임시회…“완주전주통합 반대” 결의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지난 28일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유의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완주·전주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민의 뜻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유 의장은 “완주군의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완주·전주통합 시도를 ‘행정 실험’으로 규정하며, 군민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론조사와 사회단체 의견을 통해 확인된 군민의 반대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4년 2월 KBS와 전북일보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주민의 55%가 통합에 반대했으며, 6월에는 완주군 사회단체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93%가 반대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8월에는 통합 추진 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66%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역할에도 문제가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포기하고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이미 6천억 원 이상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전주시가 이러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군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로 간주했다.

이와 더불어 완주군의회는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시장에게 통합 실패 시 정치적 책임을 질 의향을 따져 묻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요구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식목일 기념 행사 성료 천변 잔디 심기·환경 정화

순창군은 제80회 식목일을 앞두고 지난 28일 순창읍 경천면에서 군민과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청, 군의회, 산림조합, 지역 사회단체가 적극 참여했으며, 경천면에 모인 참가자들은 총 1,722㎡의 잔디를 정성껏 심고 하천변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잔디 심기와 환경 정화 작업을 통해 친환경적인 삶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산불 발생으로 인해 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더욱 고취시키는 기회가 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행사가 산림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지역 사회에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순창군 만들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춘향골 햅감자 본격 출하 210농가 조수익 20억원 기대

겨울 추위 속에서 사람과 정성으로 재배한 햅감자 출하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지난달 말 첫 출하된 춘향골 햅감자는 주산지인 남원시 금지면 일대(송동, 수지포함)에서 생산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센터)를 통해 선별,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기후조건이 좋아 하우스 한 당당 평균 100상자 이상 수확하고 있고, 현재 출하 가격은 최상품의 경우 20kg들이 박스당 8만원 이상, 평균 6만 5천원 선으로 거래되고 있다. 가을에 수확한 저장감자에 비해서는 2~3배 높은 가격이다.

금지면 일대는 퇴적 평야지 미사토양으로 배수가 잘돼 감자 생장에 좋으며, 농민들이 오랜 경험과 기술 축적으로 아삭한 식감이 뛰어난 품질 좋은 감자를 생산하고 있어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대형마트 등으로 출하되고 있다. 또한, 시설감자 씨종자의 경우 남원농업기술센터와 씨감자영농조합이 생산한 종자로 지리산권역인 운봉, 인월, 아영 지역에서 재배되며 휴면이 짧고 품질이 좋아 겨울철에도 햅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루고 있어 관내 시설재배 농가들의 큰 선호를 받고 있다.

남원시에서는 올해 210농가에서 300동 이상의 하우스 감자를 재배해 20억원의 조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4월 중순까지 감자 수확을 마무리하고 후속 작물로 수박이나 멜론을 재배해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맞춤형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모집

순창군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시행을 앞두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직장 근무 등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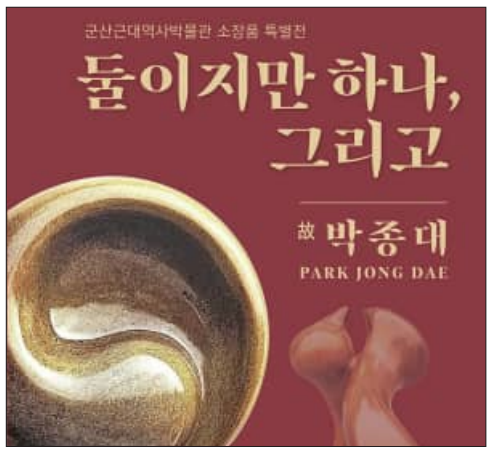
모집 대상자는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순창군민 및 순창군 내 직장인이다. 다만,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스마트 밴드가 제공되며, 사업 시작일부터 총 24주간 간호사·영양사·운동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모바일 앱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참여자들은 24주 동안 최소 3회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신체 검측과 혈액검사를 진행하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만성질환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여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650-52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근대미술관 故 박종대 특별전 '둘이지만 하나, 그리고' 개최

군산 근대미술관(구18은행)은 故 박종대 조각가 특별전 『둘이지만 하나, 그리고』를 내달 1일부터 6월 22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둘이지만 하나, 그리고' 전시에서는 故 박종대 조각가의 조형성과 작품성을 잘 보여주는 조각 작품 23점이 대중에게 소개된다. 전시의 구성은 '태극'의 상형을 중심으로 '한울', '조화', '무극', '사랑' 등 4개의 소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작품을 통해 각 소주제의 의미를 긴밀히 살펴볼 수 있다.

故 박종대 조각가는 상반된 두 개의 대립물 간의 조화와 화합을 의미하는 '태극'과 '한울', 모든 대립이 조화롭게 균형된 상태인 '무극'의 개념을 바탕으로 우주 만물에 대한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구축해 관심을 끌었다.

故 박종대 조각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한 후 왕성한 예술 활동을 펼쳤으며 1979년에 국립 군산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후학을 양성하는 등 예술가이자 교육자로서 지역 미술 발전에 기여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완주 예은노인복지센터, 홀몸 어르신 물김치 지원

완주군 예은노인복지센터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인 상관면, 소양면, 동상면의 홀몸 어르신 및 중점 돌봄 대상자 170명을 대상으로 '건강 물김치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면역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선한 재료로 정성스럽게 담긴 저염식 물김치를 전달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물김치를 받은 한 어르신은 "혼자 생활하다 보니 김치를 직접 담그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따뜻한 소감을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장수군에 생필품 기탁

취약계층 나눔실천 1억 원 상당 기부

장수군은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회장 김정안)이 취약계층 나눔실천을 위해 생필품 1,246박스(1억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후원된 물품은 장수군 관내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된 이웃들이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될 예정이다.

김정안 회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생필품 구매에도 큰 부담을 느끼는

데, 이번 기탁이 장수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 관심을 갖고 사 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지역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후원 물품을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구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은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이 취약계층 나눔실천을 위해 생필품 1,246박스(1억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장수군>

더 심플란트 치과의원,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정읍사회복지관 저소득층 청소년에 510만 원 전달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이 위태로웠던 정읍 지역 청소년들이 장학금을 통해 다시 희망을 키우게 됐다.

정읍사회복지관(관장 정관일)은 지난 27일 정읍시 소재 배영중과 샘고을중, 정일중, 정읍중, 학산중과 호남중까지 총 6개 중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더 심플란트 치과의원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장학금은 각 학교에서 추천된 17명의 학생에게 전달됐으며 학생 1인당 30만원씩 총 510만원 규모다.

장학금 재원은 정읍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결연후원 사업의 일환으로, 더 심플란트 치과 의원이 매달 정기 후원하는 30만원이 모여 특별히 조성된 기금으로 진행됐다.

더 심플란트 치과 의원은 매달 꾸준한 후원으로 정읍 지역 내 경제적 으로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 기회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정읍사회복지관은 지난 27일 정읍시 소재 6개 중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더 심플란트 치과의원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사진=정읍시>

/정읍=김정인 기자



<사진=남원시>

운봉에향회, 바래봉눈꽃축제 수익금 기탁

운봉에향회는 최근 개최된 제11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 수익금 1,000만원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춘향장학재단에 기탁했다.

28일 남원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춘향장학재단 기탁식에는 신동열 운봉에향회장, 최경식 남원시장(춘향장학재단 이사장)과 이은주 운봉읍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운봉에향회 장학금 기탁은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의 성원으로

제11회 바래봉 눈꽃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대한 사회환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신동열 운봉에향회장은 "눈꽃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남원 출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운봉에향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사진=무주군>

양시춘·김부심 부부,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무주군 적산면에 거주하는 양시춘·김부심 씨 부부가 28일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에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양시춘 씨는 "다른 지역에서 30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무주로 귀향했다"라며 "나를 길러준 고향, 다시 와도 변함없이 품어주는 무주에 대한 고마움을 장학금으로 전하게 돼 뿌듯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내와 모은 마음이 무주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 환경을 만들고 꿈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양시춘 씨는 무주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김부심 씨는 무주지역자활센터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며 지역과 이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생신 축하드립니다"

익산 왕궁면, 백세기원 선물

왕궁면이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건넸다.

왕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류형규, 김남희)는 28일 지역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백세 기원 어르신 지원사업'을 펼쳤다.

이번 사업은 왕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해 처음 시작한 특화사업으로, 협의체 위원들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생일 축하 선물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한다.

지원 대상은 90세 이상 저소득 주민 60명으로, 이달에는 1~3월이 생일인 어르신 14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과 톨케이크를 전달했다.

생일 축하를 받은 어르신은 "혼자 지내다 보니 생일이 외롭기만 했는데, 찾아와서 선물도 주고 축하해 주니 큰 위로가 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요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과 정 듬뿍담아 반찬나눔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만중)가 28일 지역내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직접 음식을 조리하기 어려운 독거세대에게 '사랑의 반찬나눔'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사협 위원들은 봄을 맞아 입맛을 돋울 수 있는 겉절이 김치 및 밀반찬 4종(제육볶음, 새우젓무침, 멸치조림, 미역줄기)을 직접 정성껏 만들고 후식으로는 바나나를 준비해 같이 꾸러미로 포장해, 요촌동에 거주하는 독거장년 및 노인 70세대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 확인 및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김만중 위원장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밀반찬을 맛있게 드시고 더욱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요촌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서정아 요촌동장은 "언제나 지역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애써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변의 이웃을 살려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조성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성내면 지사협, 생신축하 떡케이크 전달

고창군 성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부문위원장 고현규, 민간부문위원장 최인주)가 지난 27일 홀로 사는 어르신의 87번째 생신을 맞아 떡케이크를 전달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이 사업은 고창 선운산푸른떡집에서 떡케이크를 후원하고 홀로 계신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하며 건강을 기원하고 따뜻한 이웃의 온정을 나누는 사업이다.

이날 위원들은 생신을 맞은 어르신에게 떡케이크 및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고 마을주민들과 노래를 함께 부르며 축하인사를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소중한 분들에게 고창군수협 수산물을 선물해보세요

조 합 장 김충

상임이사 김영식

이 사 허행숙, 이봉남, 최경수, 윤도경, 황주동, 김원택, 김진근

감 사 이성태, 송홍식

풍천민물장어

수협에서 인증한 민물장어 양반장에서 치어부터 정성껏 1년간 길러내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풍천 민물장어로 고소한 맛이 강하고 육질이 탱탱해서 씹히는 맛도 좋아요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 지주식 재래김

김 포자를 대나무에 꽂아 밀물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때는 노출 되어 광합성을 하는 방식을 통해 자연적으로 김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김 본연의 맛과 향을 살려낸 명품김이에요

장어 | 김 T. (063)561-5949 H. 010-4390-5949

고창군수협 협동조합

www.gochang-suhyup.co.kr

〈一事一言〉



윤석열 탄핵 기각 기다리고 있는 플랜B ‘2차 내란’

김종대
연세대 통일교육원 객원교수

참으로 말하기도 어렵고 글 쓰기는 더더욱 어려운 시간이다. 나는 지난 몇 주간 방송이나 유튜브에 출연한 야당 성향의 법조인이거나 정치인의 예측이 맞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다. 일자가 아니라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한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범죄를 소명해야 할 검찰이 아예 출석하지도 않아 기각된 구속 영장 심사, 초고속으로 변론을 강행한 후 선고는커녕 4주가 넘도록 평결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 등등. 한국의 사법 체계는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시민에게 어떤 약의를 품고 있기에 이토록 비상사적인가.

24일에 열린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문은 예상과 달리 지난 12·3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없이 기각이라는 매우 모순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피청구인 한덕수가 작년 12월에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를 헌법을 위반한 ‘부작위’라고 하면서도 “국민을 배반한 정도는 아니다”라며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이 선고에서 현재는 계엄과 내란에 대한 어떤 판단도 유보한 채 형식 논리만으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참으로 무책임하며 소신 없는 행태다. 3월 초만 하더라도 이런 일련의 사법 흐름을 예견한 언론인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법조계를 출입하는 일선 기자들조차 “시중에 나돌던 지라시가 훨씬 더 정확하지 않나”는 탄

식을 한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이 조롱을 당하는 느낌이다. 대한민국 사법 붕괴의 연쇄 도미노가 진행되고 있다.

둘어해보면 헌법재판소 변론이 진행되던 시기에 윤석열 탄핵은 내용의 문제였다. 계엄이나 계몽이나, 의원이나 요원이나, 봉쇄나 질서 유지나와 같은 비상계엄의 위법 요인과 국헌문란의 의도성과 목적성에 대한 규명이 주요 논란이었다. 그러나 이는 압도적인 증거와 다양한 진술로 인해 윤석열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이즈음 국무 광장에서 윤석열 국력 지지자들의 현재 흔들기의 강도가 높아졌다.

변론이 마무리되고 3월 초에는 탄핵 심판은 돌연 절차의 문제로 프레임이 전환되었다. 국회의 탄핵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부합되는지, 청구인 측이 내란죄를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내란 피의자의 검찰 진술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와 같은 탄핵 청구 절차에 대한 시비였다. 현재의 평의에서도 재판관들 사이에 절차의 문제로 인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즈음 윤석열 국력 지지자들은 탄핵 기각에서 ‘각’로 주장을 변경한다.

변론 종결 이후 4주차에 진입한 지금은 내용이나 절차보다 ‘시간’의 문제로 다시 프레임이 전환된다. 윤석열 탄핵 선고가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이전이나 이후냐, 헌법재판관 두 명의 임기 만료 전이나 이후냐와 같은 시간의

문제가 전면에 부상한 상황이다. 지금은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던 조선일보나 국민의힘도 느긋한 기다림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그들은 탄핵 심판을 재촉하지도 않을뿐더러 조기 대선은 물 건너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한다. 이런 현상은 마치 골대가 움직이는 축구와 같다. 선수가 바뀌고 감독이 바뀌어도 골대는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데 이 경기장은 이상하게 골대 자체가 움직인다.

윤석열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 서 정작 지난 비상계엄 사태의 실제적 진실은 점점 더 미궁에 빠지고 있다. 우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이 출동한 상황에 대해서는 목격자이자 증언자다. 게다가 현재의 윤석열 탄핵에 대한 변론이 진행되는 최근에도 행정안전부가 경찰력을 주축으로 한 경비계엄의 절차와 방식을 검토하는 등 또 다른 변형된 내란이 가능하다는 점은 어떤 사법의 영역에서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

작년 초부터 준비된 ‘플랜B’는 지난해 국방부장관이 주도하는 비상계엄과 달리 경찰을 중심으로 구성된 일시에 특정 장소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경비계엄을 가정으로 한 것이다. 김용현이 경호처장이던 시절에 구상한 경비계엄 구상은 그가 국방부장관으로 부임하면서 비상계엄으로 급진화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진행된 최근의 경찰과 경호처 인사는 윤석열 선고 이후를 대비한 모종의 계획이 존재

함을 일깨워 준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윤석열의 지난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석열을 파면하는 ‘사후적 사법 기능’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다. 법을 해석함에 있어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또 다른 내란 사태를 예방하고 차단하는 사례를 만드는 ‘예방적 사법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 특히 내란과 외환에 관한 사법 처리에서 차질을 빚을 경우 국가는 순식간에 무정부 상황으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보다 훨씬 더 높은 예방의 책임이 요구된다. 내란 세력에 대한 현재의 면죄부는 윤석열 측이 노리는 무정부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지난해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 독재를 탄핵했다니 이제는 법원의 무능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로 추락할 위험이 조성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적신호가 켜진 3월은 다시 광장에서 시민역량의 대결점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는 시기다. 황사가 온다고 해도 꽃은 피게 마련이다. 더 강한 민주주의와 사회 대개혁을 향한 광장의 요구에 우리 스스로가 응답할 차례다.

본 칼럼은 시민연론 만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헌법재판소, 국가를 정녕 파멸로 몰고 갈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오랜 침묵이 국가를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미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평일과 주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헌재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선언하고, 대학생들은 동맹휴업을 감행하며,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상경하는 등 각계각층이 현재의 즉각적인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벨문학수상자 한강 작가 등 문인 414명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피맺힌 절규요, 외침이다.

그런데도 현재는 지금까지 어떠한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그저 입을 꼭 닫고 있다. 현재의 존재 이유는 국가 질서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의 행태는 외려 헌정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현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이후에나 선고를 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현재가 정치적 고려에 휘둘리고 있다는 의심까지 증폭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독립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현재는 오직 헌법과 법리에 근거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일부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특정 정치 세력의 의도에 따라 선고 일정을 미루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헌법 위반이다. 현재 현재의 행보는 국민들로 하여

금 불필요한 의심을 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의 직무는 지연이 아니라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다. 더 이상의 지체는 현재가 스스로 헌법 수호의지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윤석열의 탄핵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헌정 파괴와 내란 사태를 온 국민들이 생중계로 시청했으며 그 수괴가 여전히 국가원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은 국가적 위기 그 자체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고, 법리적 논쟁이 있더라도 이는 충분히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랜 기간 변론과 검토를 거쳐 이미 결론을 낼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국가는 더욱 깊이 망치고, 국민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헌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더 이상 정치적 고려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헌재가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특정 세력을 위한 기관인지 의심받는 상황을 절대 만들지 말라.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깊이 새기고 조속히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 그 길만이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현재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탄핵 선고를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헌재가 스스로 역사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현재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문화재열전



용담사 칠층석탑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유적건조물, 주거건축, 가옥
-지정일- 1971년 12월 2일
-시대- 고려시대
-소재지- 남원시 주천면 원천로 165-12 (용담리)

▲오늘의시

법칙 / 류근

물방울 하나가 죽어서 허공에 흩어진다 물방울 하나가 죽어서 구름에 매달린다	빗방울 하나가 살아서 허공에 흩어진다 빗방울 하나가 살아서 인사귀에 매달린다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인다
물방울 하나가 죽어서 빗방울 하나로 몸을 바꾼다	빗방울 하나가 살아서 물방울 하나로 몸을 바꾼다	사는것도 죽는것도 한 몸 우주 안에서 도망갈 데가 없다

시인 약력 : 1966년 문경에서 태어나 충주에서 자랐다. 중앙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공부했다.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시인으로 등단했다. 2010년, '상처적 체질'을 첫 시집으로 출간했다. 대학 재학 중 쓴 노랫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이 김광석에 의해 불려져 유명세를 탔다. 저서로는 '함부로 사랑에 속아주는 버릇', '싸나희 순정', '사랑이 다시 내게 말을 거네', '상처적 체질' 등이 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중앙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부안지국 010-7247-3947
완주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고창지국 010-2258-3734
팔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완주지국 010-3672-0308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믿을수있는 뉴스 전북의 중심에서!

광고문의 282-9601

https://www.jeonbuktimes.co.kr 기사제보 282-9600 구독신청 282-9603

배움의 꽃이 피어나는 혁신 교육의 도시 남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민선8기 교육관련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현재 초등학교 27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9개교, 특수학교 1개교로 총 50개교의 학교가 있다.

남원에서 나고 자라서 남원에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의 일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남원시가 '25학년도 주요대학에 전년 28명 대비 7명이 증가한 35명을 배출했다. 이는, 우리나라 10위권 대학평가 순위를 적용한 것으로 주요 대학 진학현황을 보면 서울대 1, 연세대 1, 고려대 1, 의대 1, 차대 2, 한의대 1, 약대 2, 한예종 4, 경희대 3, 이화여대 1, 동국대 2, 건국대 2, 중앙대 9, 교대·교원대·과학특성 5명이 우리나라 주요대학에 진학했다.

감소와 지역간 불균형 등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교육 혁신과 발전을 통해 교육력을 높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늘봄사업 추진 △미래형 교육 시스템 도입 △S/W 미래채움센터 활용 AI, 코딩교육 △전략사업 인재발굴 △문화예술 역량 강화 △특성화고 지원 강화 △유소년 스포츠 인재 양성으로 교육과 미래 신산업을 연계하여 미래 맞춤형 인재 육성과 지역 정주까지 지원하여 교육 거점도시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지원사업 추진

남원시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한 인재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남원시가 교육지원 관련 사업으로 총 133억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남원교육지원청까지 5개 분야



<사진=남원시>

주요대학 진학 전년대비 7명 증가한 35명 배출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 전년대비 1.4% 상승
특성화고 취업·대학 진학률 전년대비 5.1% 증가
특별교부금 99억·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글로벌 마인드 함양 '중학생 해외영어캠프' 지원

또한, 서울 수도권 진학률을 보면 2024년 14.2%에서 2025년에는 0.7% 상승한 14.9%로 상승했다.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수치 또한 2024년 86.3%에서 2025년 87.8%로 전년대비 1.4% 상승하였다.

이중에는 내신 280점 이상 성적우수자가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지 않고 관내로 진학한 학생들이 전년대비 6.5% 상승하였다는 점도 괄목할 만 하다.

지자체부터 3년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으로 교육거점도시 도약발판 마련

남원시는 2024년도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26년까지 3년간 9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남원의 교육발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남원형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인구

14개 사업에 1,884백만원을 투입한다.

△초·중·고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예술과 예체능 특기육성 프로그램 지원 △초·중·고 글로벌 진로체험 △관내학교 기숙사 급식비 지원 △교육나눔 바우처 △교육협력지구 운영 △학교특색프로그램 지원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 설치 사업등의 교육지원사업 추진으로 각급 학교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4년도에는 전북에서 유일하게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고향사랑기금으로 관내 중학생 24명을 선발하여 17박 18일(7. 17. ~ 8. 3.) 동안 수업을 참석하고 현지 가정의 홈스테이를 통해 문화체험으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의 기회를 가졌으며 올해도 추진될 계획이다.

춘향장학재단, 다양한 장학사업추진



으로 디딤돌 역할 수행

춘향장학재단에서는 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교육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6개 분야에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춘향장학재단은 95년도에 설립 이후 남원시 우수 인재 양성과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춘향인재 장학금에 2024년까지 총 2,487명의 장학생에게 234억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국제 및 전국대회에서 수상한 예체능 분야 우수 특기생에게 최고 1,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남원의 별' 특별장학금 △

대학에 합격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하는 '으뜸인재' 특별 장학금 △중1 ~ 고3 까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으뜸인재 육성사업'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마련된 '남원장학숙' 운영 등의 교육 관련 사업을 펼치며 지역인재 육성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꿈과 희망을 키울 '남원 인재학당'

지방소멸대응기금 108억원과 시비 92억원 총 사업비 200여원을 투입하여 청소년수련관 인근에 2022년부터 시작하여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공공형 학원을 건립하여 지역의 인재가 떠나지 않는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2월 착공하여 동종동 일원에 연면적 3,239㎡ 지상4층 규모로 12개의 강의실과 특별강의실, 다목적강당, 급식실 등을 갖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시내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동부권 아이들에게 균형있는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38억원을 확보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교육·문화·체육·복지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으뜸인재 참여 학생중 우수한 성적으로



호남권 대학병원 최초!

최첨단 디지털 PET/CT 가동

암·치매·파킨슨증후군·심장질환 조기 정밀진단 가능

문의 : 원광대학교병원 핵의학과 063-859-1830, 1835

차세대 의료서비스의 중심
원광대학교병원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대표번호/진료예약 **1577-3773**